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3차 간담회 결과 보고

국가기록관리 전략목표 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19. 6. 21.(금) 14:00 ~ 16:30
- 장소 : 국가기록원 회의실(403-1호)
- 참석 : 연구협력과장, 원내·외 기획단, 혁신팀 등 13명
- 내용 : 국가기록관리 전략목표 발제 및 토의

□ 주요 논의 내용

-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기획단 구성원이 온라인(밴드)를 통해 제출하고 참석자를 중심으로 발제
※ 제안 내용은 [붙임] 참조
- 제안된 정책목표의 층위와 내용이 다양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혁신팀에서 공통 사안 등을 정리하여 기획단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 필요
- 정책목표를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작성 필요
- 중장기 전략은 5개년('20-'24년)으로 수립하되, 더 장기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천과제(이행과제)는 연 단위 업무계획과 연동 필요
- 정책목표 수립시 너무 추상적인 내용 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성과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작성
- 각급 기관입장에서는 기록관 정상화에 주안점을 두겠으나, 기획단원은 국가기록관리체계 등 정책적 단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관이 어떤 기능,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주었으면 함

- 정책목표 발제를 요청받았을 때 가이드 등이 없어 너무 작성하기가 어려웠고,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애로가 있었음. 추진 단계별로 정확하게 역할이 제시가 되었으면 함
- 정책목표를 기록관리분야(기록관리체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정보서비스)로 작성할지 대상(기록관리종사자, 정부, 국민)을 중심으로 작성할 지 논의 필요
 - 비전에 제시된 ‘국민은 행복하게’를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참신해보임. 대상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 다수
 - 혁신팀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의견 수렴 필요
- 기획단을 추가로 더 모집하여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하고, 전략 마련의 일정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두고 추진했으면 함

□ 향후 계획

- 기획단 4차 간담회(7월 예정)

< 요약 >

분야 (핵심 키워드)	정책목표
독립성·중립성	○ 기록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 - 기록물관리기관의 조직(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관 기록관 등), 인원(기록전문직 및 기타 기록관련 종사자), 업무기능 정비 - 기록관리 법제 용어 정립(기록물, 기록, 기록정보, 기록생산통제, 기록관리만의 전문용어 제도권에 새롭게 포함하거나 하는 등) - 기록전문직 윤리 및 교육
투명성·책임성	○ 기록생산자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방안 - 철저한 기록화(미등록, 및 기록부존재 등) - 생산 및 기록관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 - 지도점검 및 감독 기능 통한 책임성 강화 - 기관 평가를 통한 기록관리 기관의 투명성 강화 - 생산현황 통보 개선을 통한 기록관리 통제 강화
환경변화 대응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재정립 - 기록관리기준표 및 목록 관련(메타데이터 포함) - 기록생산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 관련 (생산시스템과 관리시스템 통합 이슈 등) - 기록관리 플랫폼 및 미래 기술혁명 관련 기술 적용 - 기록물 보존관련(문서고 시스템 및 보존매체(전자 및 비전자 포함)) - 기록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록물 수집, 통제, 활용 시스템 등)
기록서비스 (소통, 협업)	○ 기록문화 확산 및 기록가치 재창출 - 기록정보서비스 강화 (기록물 열람 및 공개, 기록정보 자원 활용 등의 방안) - 기록물 평가, 폐기 및 기록처분동결제도 관련 사항 (기록물 가치 평가 판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강화) -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록화 방안 - 민간 기록관 지원 및 협력체계 관한 사항
새로운 패러다임 (제도개선)	○ 국가기록관리 체계 및 제도혁신(법제도, 위원회, 조직) ○ 보존·관리 대상 국가기록의 확장(국가지정, 민간수집 등) ○ 국가기록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방-민간/입법-사법-행정/관계-학계-산계 등 입체적 협력, 협업, 소통) ○ 국가기록관리 현장 제정(현장, 윤리강령, 실천약속 등)
기록관리기반 (기록관)	○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강화 (기준표, 평가, 기술, 수집, 이관, 처분동결, 데이터세트, 전자기록 등) ○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강화 (디지털화, 시스템, 콘텐츠, 정보공개, 열람대출, 전시, 편찬 등) ○ 기록관리자의 연구·교육 등 전문성 강화 (정책, 제도, 매뉴얼, 교육교재, 보존환경 등) ○ 기록관리 전문요원 인사교류 확대 (중앙-지방-교육청-공공기관-대학 등 가능한 방법 활용)

환경변화 대응	○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메타데이터, 데이터세트,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빅데이터 전략, 서비스 전략 등) ○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초상권, 공중송신권 등),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굴 ○ 기록관리 산업육성지원 및 인적자원 양성(R&D, 보존장비, H/W, S/W, 3D, VR, AI 등 4차 산업, 보존 및 복원기술 등) ○ 국가기록 장기보존 및 활용지원 사업 발굴(각급 기록관지원 사업, 비전자기록, 구 전자문서, 시스템개발, 시설장비, 기록화, 콘텐츠제작 등)
기록서비스	○ 초중고교과서(사회역사 등) 수록 기록콘텐츠 제작(웹툰, YouTube동영상, 체험실습교구, 자유학기제, 현장학습 등 연계) ○ 국가지정 및 기록원 소장기록 디지털화 정보 공개, 공유, 개방(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간행물, 행정박물 등) ○ 민간분야 기증, 기탁, 수집 아카이브 이용활성화(기록화, 전시, 편찬, 다큐멘터리, 언론보도, 홍보영상, 연찬회, 학술대회 등)
소통(기록문화)	○ 생활 속 기록문화공간 조성지원(경상보조(5:5, 7:3), 마을기록관(우리 동네 이야기), 등록문화재, 농촌문화마을, 도시재생 등 연계) ○ 체감형 기록문화 아카데미 운영(주제 강연, 기록문화재현·체험·공연, 나의 삶과 기록콘서트, 청소년강좌 등) ○ 참여형 기록문화 지킴이와 알리미(개인·가족·기업 등 국민 참여, 아키비스트 재능기부·봉사활동, 연예홍보대사, 대학기자단 등) ○ 디지털 국가기록영상관 건립(세종박물관단지),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청주) 운영
국제협력	○ 남북한 아카이브 협력과제 발굴(기록화, 디지털화, 보존과학기술, 인적교류, 학술대회, 기록사전 공동편찬, 기록전시 등) ○ 기록전통과 기록문화의 해외 확산(기록한류(공사, 공관, 해외문화원 거점), 기록전시, 기록문화 홍보, 기록엑스포 등) ○ 국제 협력 확대(ICA, EASTICA, UNESCO, ODA사업(MOU), 국제학술회의, 세계기록의 날, 동아시아 RMS, CAMS 수출 등)
투명성, 책임성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로 열린정부 구현 - 기록화대상 세분화 및 철저한 기록화 추진 - RMS 기능개선을 통한 자동 생산현황 추출로 기록관리 통제 강화 - 지도감독 권한 세분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환경변화 대응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 확립 - 4차산업 시대 부합하는 최신 기록관리 기술 검토 및 도입 - 기록생산시스템 통제를 통한 현행 아날로그적 전자기록관리 체계 검토 - 기록관리기준표 체계 변화 검토 - 전자기록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연구사 집중 역량강화
기록서비스, 기록문화 확산	○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기록정보서비스 분야 다양성 제고 및 강화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록화(수집) 방안 마련 - 기록문화 콘텐츠 개발 및 국민 참여 아이디어 창출
전자기록관리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 기록문화 구현
기록관리기반	공공기록은 물론 민간기록의 철저한 수집·보존
전문성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선도

기록서비스	국민에게 편리하게 기록서비스 제공
기록관리기반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문성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환경변화 대응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기록서비스	기록정보의 공개·공유 확대와 자원화
디지털 기록관리 모델 제시	○ 현행 전자기록관리 모델 조망 ○ 기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 ○ 디지털 기록관리 모델의 필수충분조건 ○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
기록관리 기반	○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 조성 ○ 투명한 기록물 생산환경 마련
환경변화 대응	전자기록환경 변화의 능동적인 대응
기록서비스	국민이 신뢰하는 기록물 공개 서비스
기록관리기반	○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 설계 ○ 기록관리 기반 강화
전문성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소통, 협업	기록관리 협업 체계 구축
기록서비스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기록관리 기반	○ 공공기록물법의 제도적 기능 강화 - 공공기록물법의 제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수단 발굴(ex.기록물분야 감사기능 강화 등)
전문성	○ 기록관리기반 강화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프로그램 실시 (ex.권역별로 교육 실시 및 의무참석의 기반 마련)
기록서비스	○ 기록정보서비스 지평 확대 - 현실 체감 가능한 기록정보서비스 발굴 (ex.기록정보콘텐츠의 질적 개선, 교육부·문체부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투명성, 책임성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공공기록의 생산부터 이용까지의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공공기관 기록관리를 내실화한다.
환경변화 대응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기록관리를 혁신하고, 조직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록물 관리기관(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한다.
기록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의 공개 열람을 적시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담은 기록유산을 국민과 공유한다.
기록서비스	기록데이터 품질 확보 및 기록정보 이용자 만족도 향상
투명성, 책임성	국정 수행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절차 방식)
환경변화대응	전자기록관리체계 확립 기록관리 현장과의 협력 지원
기록서비스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기록물 활용 서비스

독립성	○ 법을 통한 독립성 보장 ○ 기록관리 감사, 수사 기구 마련 ○ 기록관의 물리적 독립(실체가 뚜렷한 기록관, 건물, 서고 등) ○ 기록관 조직의 위상(행정, 총무과 등으로부터의 독립)
투명성, 책임성	○ 국가기록원 조직 재설계 및 위상 제고 ○ 공공기관 지도·감독 기능 강화 ○ BRM 및 기록관리기준 재설계 ○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정비
독립성, 중립성	흔들림 없는 국가기록 관리를 위한 정치적·조직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수립
기록서비스, 기록관리 체계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따른 국민의 국가기록관리 인식과 서비스 확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정비
기록관리체계	법제도의 기록관리 인프라(프로세스) 설정
	기록물 평가정책 및 기준 수립
기록서비스	공개재분류 제도 개정 기록물 기술 데이터 작성
투명성, 책임성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로 열린정부 구현 - 국가기록원 기관 독립 및 조직 확대 - 공공기록물관리(법) 위상 고취 -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등 법적의무 적극 이행
환경변화 대응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 확립 - 대상 맞춤형 기록관리 역량(기관, 개인, 국민) 강화 - 기록관리 환경변화(미래 예측, 기획) 체계 구축 -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기록 관리체계 강화
기록관리서비스	○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국민 참여 국가기록물관리 자문협의체 구성 - 대국민대상 교육, 행사 등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민간기록물관리 중·장기전략 마련
전문성	○ 아키비스트의 전문성 강화 - 예비 아키비스트(대학) 및 현역(기록관, 영구기록관)을 포괄하여 전자기록관리 등 급변하는 환경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능력 함양
환경변화 대응	새 시대의 기록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전자기록관리체계 전면 개편
신뢰성	기록과 기록관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법제도 전면 정비
기록서비스	국민에게 최선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 마련